



뜻 음

정현수

(영상사진예술연구회 1671)

동국개혁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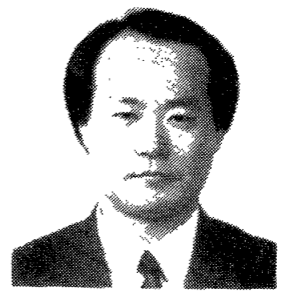
고객같은 학생·의식있는 관리자가 되어야

정치, 사회, 문화가 온통 개혁과 변화의 색으로 뒤덮인 한해였다. 알맹이 색깔은 안보여서 모르지만 말이다. 국가적으로 교육개혁 방안이 확정되고 우리대학 또한 모처럼 동문 총장님이 의욕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Y·S정권의 슬로건인 '개혁과 변화'에 정략성이 내재돼 있다던가, 총장개인의 선호도는 논외로 치고, 단지 이 시대가 개혁과 변화를 요구하고 또한 정당하다고 판단되기에 망설임 후에 나 자신부터 매를 맞는 기본으로 이 글을 쓴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은 시장경제의 원리라고 생각된다. 부의 세습이나 개별적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는 있으나 물론 지키면 그대로 공정성이 보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더군다나 입학시험부터 완전한 경쟁을 거치는 우리대학생들은 고

동/문/칼/럼

선거혁명(?)



계절적으로 요즘부터 춘분까지가 일년중 가장 쌀다는 글을 최근에 읽고 동감했던 기억이 난다. 마음은 이미 봄인데 거리 풍경이 나 자연은 아직도 겨울 분위기에 머물러 있어 스산하고 황량하기만 하다. 그래도 봄은 오는 것이고, 무거운 겨울 옷을 벗어 던질 생각만 해도 마음이 가벼워진다.

지난 겨울 내내 여러 신문들은 봄이오면 치뤄질 총선거 관련 기사로 많은 지면을 할애해 왔다. (너무 지나쳐 남비라는 생각이 들었고) 술술 볼 기운도 느껴지지 않던 총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대총선거를 기다리는 것은 기실 나 자신이 정확한 선거 일자를 모르기 때문이다.

신문 지상으로는 선거 열기를 느끼지만, 직장에서나 사는 동네에서나 선거는 화제거리가 아니다. 관심이 없다는 소리다. 선거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인

지는 몰라도 그 동안의 우리 선거가 학연, 지연, 혈연 플러스 돈으로 치뤄져 왔다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 특히 지연, 혈연에 따른 이기주의는 근년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출신 학교 역시 출마자들이 애써 홍보하는 것으로 보아 주요 득표원인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다른 경향도 생기고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고교 평준화 이후 세대는 과거 선배 동문을 동류의식과 갖고 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과 낯을, 출신교를 떠나 제대로 된 인물이 공직자로 선출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소리고, 이런 풍토는 구세대보다는 개성이 강하고 자기 주장에 당당한 신세대로부터 확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선거 혁명이 아닐까.

그래도 출마자 소개년에 우리 동문 출신이 있으면 반갑다. 건전한 양식과 지도력 있는 동문들이 많이 당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런 생각은 내가 이미 구세대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또한 청산되어야 할 학연이기에 주의해 나 자신도 사로 잡혀 있지 않은지 걱정도 해 본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은근한 기대와 지원을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위안도 된다.

한 주 선
(홍성물산(주) 부장·무역 79층)

열린 글 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하이텔을 이용하실 경우, DGU 10번게시판이나 ID: dpress@del을 통해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느낌

— 수색 지역활동을 다녀와서

나는 미술학과에 재학중인 90학번으로 이번에 다시 복학하는 학생이다. 며칠전 입학식때 등록금 문제로 침묵시위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비록 같이 동참하지는 못했지만 심적으로는 그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며칠전 뉴스에서는 70년대 대학 등록금은 소1마리 가량 팔아먹었고 90년대 이후는 3마리 가량의 소를 팔아야 한다니 팔자처럼 농촌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까지도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여간 죄송한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자취를 형성하는 성 건물, 석장, 급장 자취방은 이전에는 성건동 방값은 80만원 가량, 좋은방도 1백20~1백50만원 정도면 구할 수 있었고 석장이나 급장은 40만원에서 80만원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적게는 1백만원에서 3백만원 심지어는 정세로 2천만원까지 이르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대학 1년 다니는데 드는 최소비용이 8백만원 이상이 들게되는데 과연 대학 4년동안 3천5백만원 이상의 효용가치를 얻어가는 학생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무의미한 질문을 던져본다.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치솟는 등록금은 빈약한 재단입금과 더불어 백년지계라는 교육보다 병든 산물의 국방비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대학을 하나의 고급인력 양성소로 보는 단일한 정부의 정책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별로로 생각하는 일부 상인들과 임주들의 답답함으로 인한 대학이 물기인상은 차라리 일선캠퍼스로 모조리 옮겨가서 경주시에 본대를 보여주자는 허탈한 주장이 학생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학우들의 상숙한 의식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자본주의사회의 가장 폐쇄된 학력·피폐·상업적인 대중문화에 젖어들어 아무런 비판의식도 없이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우리 자식들이 태어나서 대학다닐때 즈음이면 소3마리의 우물탕이 아니라 집까지 팔아야하는 망할탕이 대학의 표상이 되지않을까 걱정된다.

김태구
(인문과대학 미술학과)

처음에 수색동 철거대책위원회를 방문했을때 아이들은 극성스런 장난으로 나를 맞이했고 철거민들은 소박한 웃음과 악수를 청해 주었다. 그런 왈카지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기 머리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폴리앗과 솔직히 말해서 '뭘 다 철거해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건물들, 그리고 옆동네 주민들의 따가운 시선들이 황량한 풍경만큼이나 내 마음을 암울하게 했다.

그런 황량한 풍경속에서 그렇게 밝게 웃는 아이의 모습이 무척 의아하게 느껴졌다.

사실 이러한 철거지역은 내가 현재 살고있는 집, 학교등과는 편향되게 차이가 났기에 처음엔 쉽게 적응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난 아이들의 장난(장난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과격함)에 억지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었고 어른들의 말쑥한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대할 수 밖에 없었다.

3박4일의 기간중 절반동안, 이처럼 어색하게 생활하면서도 난 점차 그 풍경과 그 분위기에 젖어들게 되었고 사람들에 익숙해져 가는 나'를 느꼈다. 특히 호별방문을 하면서 주민분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끈끈한 조밀함에서 날뭇래 글썽이던 눈물과 나무뭇갈을 나르면서 했던 공동노동, 그리고 소주잔 간 갈이하며 민중가요를 두손 맞잡고 함께 불렀던 시간들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철거민들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기에 충분했다.

재개발지역에서 특히 전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착취와 모순의 불평등 관계때문에 지역주민의 삶 그 자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역연대활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거창한 계획보다는 나랑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던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느낌이 더 큰 감동을 받았다.

3박4일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돌아오는 길에 미친듯이 힘겨운 걸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너와 내가 아닌 '우리'를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종열
(사회과학대 정치과)

▶날이 갈수록 오르는 대표적인 두가지: 물가와 등록금. 좀 낮추어 줄 순 없나?
▶여러분 땅을 파면 돈이 나오니까? 어쩌다 실업이 나올 수도 있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등록금 인상을 반대하는 것뿐입니다...



등록금 인상

▶내가 2백4장의 만원권을 냈더니만 천원권 한장을 거슬러주더라. 세상에나...이럴수가...
▶친구야! 우리 등록금 모아서 대학하나 더 세우자!
▶동: 동이 휘도록 벌어가 룩: 모름
▶우리의 권리를 우리가 찾아간다

자빠진다.
▶등록금이 '등'자로 시작하는 이유는? 오름 등(登)이기 때문이다.
▶등록금을 올리면 올리만큼 되돌려주세요. 등록금이 올라도 그만큼 돌아오면 손해는 없으니 가요.

목errick

☑ 축하합니다

- 사회과학계열 새내기들이! 입학 축하한다. — 선배일동
- R.O.T.C 36기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 ROTC 35기 일동
- 이재오의 처음이자 마지막 장학금을 축하하며 — 91경계 개
- 이간강좌 경상학부 신입생 여러분 입학 축하합니다. — 정치경제학연구회
- 뱀 새내기 여러분 입학 축하드려용! — 上京
- 96 생자대 정연이 생일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생자대 선배님들! 배고파요! — 96 K와이
- 혜정아! 재입학을 축하한다. 입학금이 비싸다고 걱정하는 네 모습이 안타깝구나. 후후, 앞으로 잘 살아가자 — 史94동기, 영

■ Roommate의 건강회복을 기원하고, 생일을 축하하며 — 철 동문

■ 영원한 77 중민이의 귀빠진 날 (3월14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 만

■ 축하! 지교91 홍구리가 많은 남자들을 버리고 3월1일 약혼을 했구나. — 김장군과 정법사

■ 96 새내기 여러분! 공대 풍물패 한소리에 들어온 걸 환영합니다. — 한소리 95일동

☑ 알립니다

- 3월12일 역사적인 국교과 1:2대면식이 있네요. — 제일 이쁜 쌍
- 손짓사랑회에서 12기를 모집합니다. 12월말 마지막 홍보공원이 있거든요. 구경 많이 오세요. — 11기 이쁘니
- 기사 보셨죠? 언제나 신입부원은 왕(王)으로 모십니다. 일단 부원이 되면 목(玉)과 같이 빛날 추억으로 평생 남을 겁니다. — E·L·F 일동

☑ 열심히 합시다

- 새내기도 현내기도 같이하는 공간, 등투 승리하자. — 아·총
- 올해는 우승 한번 합시다. — LAE의 X자

동/악/광/장

다함관 식당

11(월)	순두부찌개(900)	탕수육백반(1,500)
12(화)	살랑탕(1,000)	잡채밥(900)
13(수)	물계해장국(900)	오징어숙회백반(1,000)
14(목)	참치찌개(1,000)	튀김라면(900)
15(금)	만두백반(900)	미트스튜백반(1,000)

교직원 식당

11(월)	쇠어찌개(2,200)	삼치구이(2,500)
12(화)	감미탕(2,700)	너리꼬추부숙(2,500)
13(수)	죽국(2,200)	난자완소(3,000)
14(목)	곰장전골(2,500)	나물비빔밥(2,200)
15(금)	순라국수(2,200)	담조림(2,500)

☑ 축하합니다

- 불교학과 잠생기 대현이, 예쁜 지영이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 유이가
- 3월6일 대현오빠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근대 고릴라도 생일이 있잖아?! — 경상학부 96 윤용철
- 세라하는 후배 J·M

☑ 축하합니다

- 다함관 식당
- 교직원 식당
- 포함 대동 신입생을 입학 축하합니다. — 동문회장
- 은주와 선영이의 입학을 축하해요. — 도근
- 정은아, 점태야, 가희야 3월달 생일맞은것 축하한다. — 근대가는 영호이가 P·S 국문인 여러분 군대가면 꼭 편지해 주세요.
- 영준야, 상욱야 휴학축하(?)한다. 빨리 군대가길... 제발... — 예쁜이
- 변성기의 산·안·공편입을 축하합니다. — 보형
- 절대쌍고 언니 3월6일 탄신일을 축하드려요. 쓰러져가는 고목 4학년이 아닌 꽃피는 춘3월 진달래 4학년으로 올 한해도 OK? OK? — 전일동
- 3월8일 용우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HAPPY Birthday to you

☑ 열심히 합시다

- 사회복지학과 노예(?)조교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세요. — 석창 동거인 2명
- ☑ 열심히 합시다
- 한·중·여러분 우리 모두 힘을 내시다. 쓰러지지 마시다. — Z·W
- 불휘 임원단 후배님들 을 한해 열심히 꾸러나가세요. — HAHA
- 양상공! 동거를 하게되었는데 우리 잘 살아보자고요. — 공주
- ☑ 그리고...
- 남종아, 못생긴 탓으로 기속사 멸이졌지만 내가 너 좋아하는거 알지? I always love you! "유욱~!" — 예배서 기속사에 남은 내가
- YOU LOSS에서 멋진 새내기들을 모집합니다. 출을 사랑하시는 분은 모두 오세요. — 은영
- 아야! 소나비가 뭐개! 학생회관 4층에 있다!! 가볼까나??? — 아·총
- 아마추어 무선사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HAM(아마추어 무선국)
- 중앙노래패 알생을 강간(?)할 96학번 새내기를 기다려요. — 단부지

온방골

☑ 축하합니다

- 91 관·경 한영훈 생일 축하한다. — 시끄러운 Family 일동
- 제17대 회계학과 학생회의 출범을 축하드려요 예비대학, 입학식 치르느라 집행위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제16대 회계학과 학생회 두목
- 영신·유성 동문회 새내기들의 입학 축하합니다. — 동문회 선배일동
- 졸업준비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부위원장님(3월15일)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한해동안 고생하시길... — 같이 생활할 두구가
- 상태, 정규, 범범, 태영, 정호, 대상... 복학을 환영한다. — 그대들을 기다리느라 1년 쉬어버린 여인이
- 도마뱀 같은 관광경영 신용우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선물은 나중에 용우야! 사랑해 — 전일동
- ☑ 수고하십니다
- 사리리 발글던여러분 발글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 모화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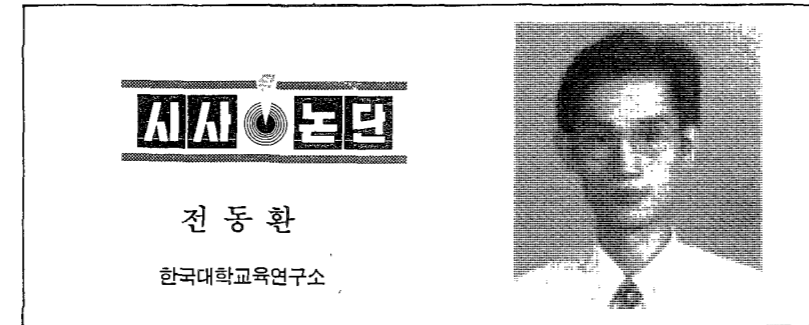
등록금 고율인상 과연 타당한가

국고보조금 확대·재단전입금 충당으로 교육비 부담 덜어야

88년 납입금 자율화 조치 이후 사립대 납입금은 매년 10~17%의 고율 인상을 거듭해 왔다. 그 결과 90년 연간 1백50만원 정도이던 인문·사회계열 납입금이 95년 연간 3백만원에 이르렀으며, 의학·공학·예체능계열, 의·치·약학계열의 납입금이 90년 연간 2백만원 수준이던 것이 95년에는 연간 4백만원 이상으로 올랐다.

이러한 사립대 납입금 인상은 그동안 연평균 7% 수준에 머물렀던 물가인상률은 물론 연평균 10% 수준이었던 대학 교육원인건비 인상률보다 높은 것이었다. 특히 사립대 신입생 연간 납입금은 85년 소 115마라나 쌀 18.37가마 값이던 것이 95년에는 소 2.29마라나 쌀 46.78가마 값에 이르렀다. 10년동안 소 값은 2백21%, 쌀 값은 1백72%가 인상된 반면 사립대 신입생 납입금은 4백39%나 뛰었다.

이러한 사립대의 등록금 고율 인상은 학부모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대학생 자녀 1명의 납입금으로 93년 농가소득이 1천6백93만원이었던 농민은 소득의 17.72~23.63%를, 94년 가계소득이 2천424만원이던 도시근로자는 14.69~19.59%를 부담해야 한다는 데서 잘 알 수 있다. 여기에 94년 현재 2백35만원에 이른 사립대 학생 1인당 사교육비 부담까지 합치면 농민은 31.60~37.51%, 도시근로자는 26.20~31.10%나 부담해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서민들의 처지다. 그러나 웬만한 서민들은 자식을 대학보내기 위해 허리가 휘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돈 없는 사람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생각조차 할 수가 없다"는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전 동환

한국대학교육연구소

교육은 나라의 백년대계다. 따라서 교육에 필요한 재정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사립대에 주는 국고보조금은 미국의 20%, 일본의 15%에 훨씬 못미치는 3% 밖에 안된다. 그러면서 정부는 교육의 수혜자를 학생으로 국한시킨 '수혜자부담의 원칙'이라는 논리를 개발·유보함으로써 학생들의 납입금을 고율로 인상시키려 한 사립대 당국과 사학경영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었으며,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떠넘겼다.

그뿐 아니라 김영삼정부는 국방예산 감축 및 주한미군기지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체지원금 폐지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지 않고도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는 데도, '교육재정 GNP 5% 확보방안'으로 "담배소비세, 교통세, 유류세 등에 교육세를 신규 부과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서민들은 나날이 오르는 납입금과 더불어 가는 사교육비의 함께 이중삼중으로 교육비 부담을 떠안게 됐다. 정부의 방관대라면 국민들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휴먼운동을이라도 해야 될 판이다.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학재단 역시 94년에 29개 재단이 법정 부담금 전입금을 한푼도 안냈고, 34개 재단이 지정시설비 전입금을 한푼도 안내는 등 문제가 많다. 94년 결산기준으로 덕성여대 7백97억, 한양대 7백14억, 동국대 29억 등

전국의 모든 재단에서 쓰지 않고 95년으로 남긴 돈이 3천9백18억이나 됐던 사실은 사학재단이 돈이 없었던게 아니라 학교에 대한 투자의지가 없어 재단전입금을 적게 주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인건비와 재산조성비 등의 지출예산을 행위기에 부담하게 납입금을 인상하고 있는 사립대 당국도 각성해야 한다. 게다가 납입금이 대학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사립대 당국은 학생들을 위해 써야 할 돈을 제대로 쓰지 않고 있다. 학생경비비 납입금 중 20%를 지출해야 하는데도 15.34%에 머물 동국대를 포함한 95개 사립대 기준이었는데도, 납입금의 5%가 돼야 할 실험실습비가 전국 평균 1.99%에 그친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사립대는 재정을 공개해야 하지만 이화여대 1천3백92억, 연세대 7백83억, 동국대 2백51억 등 전국 모든 사립대에서 쓰지 않고 95년으로 남긴 돈이 8천2백14억에 달했던 사실에서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돈을 남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가 사립대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학교운영비의 10%으로 늘리고, 재단이 법정 부담금 전액과 재산조성비 50%를 전입금으로 충당하며, 사립대 당국이 부담한 방법으로 납입금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서민경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

◆ 불합리한 한미행정협정 개정과제

한국의 주권 및 사법권 보장이 우선
미군범죄-재판관할권·경찰권 행사당연

1992년 10월 경기도 동두천 유골이 새해사건, 지난 5월 19일 지 하철내 미군들의 여승객희롱과 시민 집단폭행, 5월 22일 술취한 미군의 택시기사 폭행,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채 빈번하게 자행되는 미군들의 범죄.

한·미 두나라는 6·25 직후 전시상황에서 '대전협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계속된 미군살인으로 한국내 여론이 악화되자 66년 7월 9일 한·미행정협정(외무부 공식 약칭: SOFA)을 체결하여 이듬해 2월9일 발효하게 되었다.

그러나 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차원에서 제기된 한·미행정협정개정은 양국정부의 인식으로 2년간의 협상 끝에 1991년 현행 한·미행정협정개정으로 1차 개정되었다. 그러나 1차 개정은 결핵기시이었다. 67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의 본 협정 3개 부속문서는 일반적으로

미측에 유리한 불평등 조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 합의의사록을 개정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것은 형식적인 개정사용만 하고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결과였다.

이제 30년이 지난 96년 또다시 개정의 바람이 불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주한미군관계자와 정부관계자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구성되어 서울, 워싱턴에서 각각 2차례의 협상을 가졌다.

우선 이번 협상은 국민, 정부, 사법 당국이 인식하고 있는 형사재판권의 내용중 타국에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을 개정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의 권리신장을 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이것은 주한 미군에 대한 법적 손상의도가 아니라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가하며 타국에 준하는 수준의 권리를 가지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4차례 협상에서의 원칙적 합의사항에 대해 외무부 한 관계자는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법절차가 판이하게 달라 미국측을 설득하기가 쉽지는 않다고 "피의자 신분"인도 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1차적으로 합의했다"며 "개정내용들이 추상성이 높아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된다. 추후 개정방향을 일단 로마에 왔으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주한미군도 우리법의 적용하에 있어야 하며 우리의 방위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피의자 신분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진행시킬 것이다. 그리고 양국의 미덕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시기에 즈음하여 지난 12월에는 '한미행정협정 개정 공청회'가 열려 절차상의 개정만을 요구하는 미국측의 입장을 비판하고 개정에 대한 7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범죄에 대한 한국정부의 수사권과 재판권, 형사집행권 보장 △미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보장 △전국 120개 1억명에 달하는 미군기지의 무상사용 중단과 임대제한 설정, 임대료 징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권 신설과 오염에 대한 미군측의 책임 △미군발수와 PX불법 유통 방지 및 구제적 방안 제시 △주한미군에 고용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등이다.

한미행정협정이 체결된 이후 한국정부가 1차 재판권을 행사한 건수는 약 0.7%에 불과하다. 이는 NATO의 52%, 일본의 32%와는 비교가 되지않는 극히 저조한 실적이며 그나마도 대부분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고 말았다. 또한 일본의 경우 피의자를 계속 구금할 수 있으며 신병이 미국측에 있는 경우에도 기소 후에는 일본측에 신병을 인도하게 되어있다는 점등을 볼때 기존의 한미행정협정이 얼마나 결점투성이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다.

한미행정협정 개정에 부딪쳐 우리는 몇가지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첫째, 한미행정협정의 불합리한 조항들은 한국에 대한 주권 및 사법권의 보호를 해치지 않도록

더욱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91년 개정시 67년 협정을 그대로 방치한 본 협정은 물론 불협조보다 불평등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합의의사록과 개정된 양해사항이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 조항은 적어도 NATO협정이나 미일협정 및 미·호주협정의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셋째, 개정추진 중에도 미군범죄에 관한 재판관할권·경찰권 행사등 한 미행정협정의 규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넷째, 주한미군에게 한국의 문화, 관습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해야하며 경찰내에 영어구사가 가능한 요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 등이다.

이제 한미관계는 시대적관계가 아닌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발전되고 있다. 한미행정협정도 이러한 조류에 부응하여 불합리한 조항들은 마땅히 개정되어야 한다. 이는 한국의 주권 및 사법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며 원활한 국제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인 사항이다.

정당하고 신속한 법 집행이 가능한 한 미행정협정 개정을 기대한다. (송선영 기자)

사설

논의기구 건설로 단결의 장을

개강을 맞아 새롭게 시작하는 설레이므로 활기차할 캠퍼스가 그리 밝지만은 않다. 매년 두자리수로 오르는 등록금이 너무나 높아진 탓에 걱정하는 부모님 한숨 때문이기도 하고 높아진 등록금만큼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별로 체감할 수 없어서이기도 하다.

그동안 본교가 이전에 없던 많은 변화를 한 것은 사실이고 개교 90주년을 맞은 시점에서 어느때보다 동국발전에 대한 의지가 높은 것은 주지하는 바다. 그러나 지난 서울캠퍼스 입학식과 학술문화관 준공식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상황은 많은 동국인들을 안타깝게 했다.

새롭게 대학생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맛있는 신입생들의 입학식장에서 일어난 마찰은 새내기들에게 대학의 첫인상이라는 점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학술문화관 준공식에서 일어난 상황은 학내구성원만이 아닌 외부인들 또한 참석한 자리였다는 점에 써 그 심각성이 더하다. 결국 해결된 것은 없고 서로의 경직된 모습이 불신만 남겨놓았다. 한편 준공식행사를 방해한 학생들의 행동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생들은 주제적이고 정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방법상 올바로 풀지 못했다는 비판 여지를 남길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화로서 풀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술문화관이 준공됨으로써 막혔던 숨통이 트일 많은 기대를 했었다. 하지만 정착 설제도와 이전에 따른 공간배치가 공개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학교당국이 쉬쉬하고 공간배치에 대한 공개를 꺼린 것은 사실이다. 이런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합의해 나가기란 불가능했다. 이전 해당 학생들이 나름의 철저한 계획도 준비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기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한 것도 문제이지만 그런 극한 행동까지 가서야 비로소 대화의 물꼬를 트는 학교당국도 이제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번 문제가 그동안 서로 대화를 통해 풀려야 하는 의지가 없었던 데서 기인한다. 방중 몇차례의 등록금협상도 협상단계 진행된 적은 없었다. 학생대표들이 학생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대표다운 모습이 아쉬웠던 것도 협상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학교당국자들의 책임성이 부족했던 것도 그 이유지만 학교구성원의 일주제로서 인정하지 않고 홍보대상으로 학생들을 생각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동국발전에 대한 의지와 더불어 그 실천도 함께 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학교재주체들의 논의의 자리가 없었던 것은 아쉬운 일이다. 일반적으로 요구하고 설득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주체들의 의견을 모으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제는 극한 상황을 만들어서도 안되고 책임자 면담이라는 방식을 문제해결의 열쇠로 생각해서도 안될 것이다. 성패가 있는 대립의 장이 아니라, 학교발전을 위한 대화합의 열린 논의기구를 한번 건 설해볼지도 하지 않겠는가.

동국 90주년의 역사를 동국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고 발전의 도약으로 삼기를 간절히 바란다.

동국관평

강성수



NO Comment
80년 당시 글락스틴대사 일구리를 찌르고 크리스토퍼 국부지관이 둘러댄 영어간사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잘 나간다' 는 말이 어울리는 젊은이들

금년도 자금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한 보고서로 팀원들을 깜짝 놀라게 한 재무기획실의 창훈. 21세기 세계10대생보사 진입을 위한 13대추진전략수립 등 삼성생명의 비전을 설계하는 기획조사팀의 창철. 첨단 해외정보를 통한 국제투자료 거대한 삼성생명의 자산운용을 주도하고 있는 국제사업부의 세락. 인간미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영업관리를 인정받아 세계 생명보험의 메카 일본생명으로 연수과전철 영철. 삼성생명의 잘나가는 34기 동기 4인방이 영철의 출국환송을 위해 오랜만에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분야가 보험산업의 핵심이라 자부하면서도, 최고의 금융전문가 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커가고 있습니다. 최고의 향배는 이들- 바로 삼성생명의 미래입니다.

가족사랑 이웃사랑



삼성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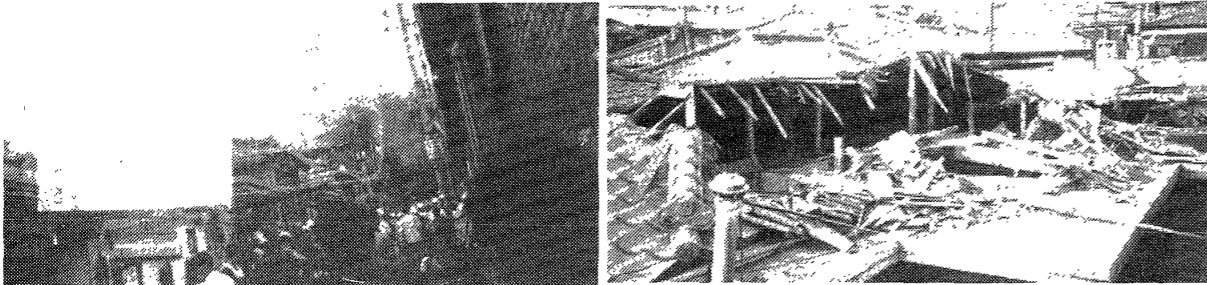
국제사업부 박 세 락

기획조사팀 김 상 철

법률팀장 송 철 영 철

재무기획실 과 창 훈

수도권 철거지역 상황과 주민피해사태 강파 동원철거·경찰 중립 내세우며 방관 '선대책 후철거'로 지역주민위한 재개발해야



◇철거폭력배의 방화로 인한 강제철거가 진행되는 모습(좌)과 싸움이 철거된 전농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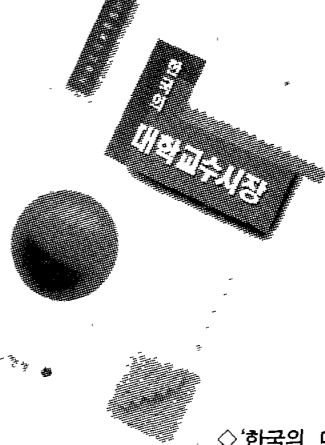
1996년 대한민국 3월. 4월11일 총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정치계에서는 자신들의 자리정착기에 정신이 없는 가운데 다른 한쪽에서는 대책 없는 강제철거로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가고 있다. 지난 95년 3월 금호 1-6지구 바근백세 분신투신 사건을 비롯해 4월에는 철거민 전세 성폭력테러사건, 7월 봉천동과 9월 암사동 강제철거, 10월에는 번3동 총기난사 사건 등 1년동안 열거하기 힘들 정도의 강제철거로 인한 주민피해사태가 일어났다. 최근에는 살인에 준한다하여 국무총리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통질계 강제철거도

상계동과 가락동, 암사동에서 일어나 주민 7명과 학생 2명이 중상을 입었고 주민 7명이 연행되기도 했다. 특히 96년 들어서는 수지 2지구에서 진행된 강제철거로 주민 2명과 학생1명이 중태에 빠졌을 뿐 아니라 주민 1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사망한 주민 서연자씨는 세 아이의 엄마로 남편까지 철거싸움 도중 중상을 입어 세 아이는 고아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또 지난 2월22일에는 돈암동 가수용 단지에서 계획적인 방화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92년 서초동 비닐하우스 존 꽃마을 화재사건을 상기시킨다. 이처럼 강제철거를 당한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지만 특히 자녀들 문제가 심각하다. 교과서와 옷등이 없어 학교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갑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의 아이들은 철거소식에 충격을 받고 가출을 해 거리를 떠돌아 다닌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강제철거에 적개는 1백여명에서 광개는 1천여명의 철거강파가 동원되는데 소위 돌격대장이라 불리는 철거반원에게는 일당 50만~1백만원, 공사판 연출이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동원되는 실질적인 철거반원들에게는 일당 7만~10만원이 지급되는데다 철거를 맡게되는 용역회사 1지역당 15억~30억원을 받고 조합의 철거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작업을 따내

기 위해서는 철거폭력의 강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들 '철거강파'중에는 폭력배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봉천5동에서는 대마초가 발견돼 '환각상태에서 철거폭력을 행사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폭력사태를 마면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현장에 함께 나란 경찰들은 '중립'을 내세워 방조하기를 일삼는다. 우리나라는 현재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함께 가장 진인하게 강제철거를 행하는 나라로 UN인권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생존의 위협을 받으며 약 15m나 되는 철거위에서 철거용역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이웃 주민들은 "지난 6·27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뽑힌 민선구청장이 오히려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것에 심한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하고 "권력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정치세력의 끈근한 정경유착을 계속 방관한다면 누가 우리같은 철거민이 될지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선대책 후철거'로 가수용 단지를 마련해 놓은 이후 지역 주민을 위한 영구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재개발이다. 그렇게 된다면 '강제철거'가 아닌 자발적인 '철거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민들은 말한다. 현재 서울의 각 대학교 학생회에서는 철거지역에 공부방과 놀이방을 운영하는 등 지역연대활동을 벌이고 있다. 본교 동아리연합회와 불교대·법과대·사회과학대연합은 겨울방학중에 3박4일의 일정으로 철거지역인 금로동과 수색동에 각각 지역연대활동을 다녀왔다. (연)

◇서평 '한국의 대학 교수 시장'



◇저자인 장정현(교육93졸)동문은 현재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간사로 서 본교 중앙교과위원장과 한총련 중앙위원을 맡은바 있다.

◇'한국의 대학교수 시장'은 우리사회 대학 교수 임용의 문제를 처음으로 근거있는 자료제시와 심도있게 파헤쳤는데 큰 의미가 있다.

교수임용비리 관한 구체적 사례·근거 제시 부조리 극복으로 대학발전 전기 삼아야

최근 제목부터 불손한(?)편의 책이 발행됐다. '한국의 대학교수 시장'(저자=장정현·교육 93졸,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 간사)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몇 년사이 교수 임용에 대한 몇몇의 문제 제기는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사례나 근거, 명확한 자료가 제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5월, 70여개 대학 2백여명의 교수가 모여 창립한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대표=권태준·서울대 교수)은 교수 채용 과정에서 그동안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교수 임용 과정의 비리를 공론화 시켰다. 특히 지난해는 대학 종합평가 인정제의 실시를 계기로 각 대학에서 경쟁적으로 교수 모시기에 추진하고 있던 때라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당시 이모임에서 제시한 교수 임용의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금전 거래, 친인척 관계나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정실 인사, 유력 인사의 청탁, 무능한 현직 교수들의 보신책에 의한 우수 인력 배제 등이었다.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것이 바로 '한국의 대학교수 시장'이다.

이 책은 기성 학자와는 달리 신세대적인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집필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평하고 있다. 최근 한겨레21(제99호, 1996년 3월 14일자)에 "돈없는 교수 꿈꾸지 말라?"라는 제목의 진단 기사가 실렸다. 기사에 따르면 전문대 전임강사 자리는 5천만명, 4년제 대학의 전임강사는 1억이 공정거래는 것이다. 이러한 보도는 이책 발간 의미를 더욱 크게 만들고 있다. 특히 이책의 서두에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한 분의 훌륭한 스승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는 질문을 더욱 뼈아프게 받아 드리게 만든다. 이 책은 모두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장에서는 대학교수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제1장에서는 교수 임용 절차와 관련해 자격 기준, 임용 기준, 학과 결정, 교수 임용 권한과 관련 기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제2장에서는 교수 임용(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모교 출신과 특정 대학 출신 교수 임용의 문제점, 교수 정원 부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제3장 교수임용 개선을 위한 노력에서는 대학 평가 인정제와 브레인 풀 시스템, 새로운 교수 임용 제도에 대해 제시하며 이와 함께 교수 공정 임용을 위한 모임도 소개되고 있으며 제4장과 5장에서는 대학교수 임용 비리 실태와 교수 채용 모형(심사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6장에서는 대학 시간강사의 문제점과 극복 대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마지막 부록에서는 이책의 근거가 되는 각종 자료와 설문지가 들어 있다. 이 책은 처음으로 우리 사회 대학교수 임용의 문제를 근거 있는 자료 제시 심도 깊게 파헤쳤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보다 나은 교수 임용과 더 나아가 대학 사회발전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울러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교수 임용 과정의 부조리가 더이상 감추어만 질 것이 아니라 전 대학인의 관심과 의지로 극복되어 어지기를 바란다. (사회부)

철거민 신중란씨를 만나

"혁이 사진마저...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죠"



◇아이들을 생각하면 항상 눈물이 난다는 신중란씨

"돈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불타버린 빌딩고, TV는 다시 살 수 없지만, 아들 사진은...혁이가 커서도, 5살때까지 자신의 모습은 영영 보지 못할 것 같아...하마 차마 말할을 잊지 못하는 신중란(30·전농3동)씨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떨리고 있었다. 장바지에 하얀티, 소말하게 묶은 뒷머리, 아이들을 얘기할 때마다 빛나는 눈망울. 그녀를 전농3동의 다른 지역에서 봤다면 우리 주위의 친근한 이웃으로 느껴졌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철거민에, 집도 없는 특수상황에 처해있다. 용역강파에 의해 강행된 작년 7월21일 철거에서 집이 전소돼 버렸기 때문이다. 치열한 그녀의 상황을 그녀는 이렇게 묘사한다. "가스를 아시죠? 강파가 올라오면 가스를 불지르겠다고 협박할 생각에 집으로 올라오는 길목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열걸... 안에서 지켜주던 학생들이 용역강

파에 떨려려 언덕을 올라오는걸 보고 가스통 들고 정신없이 언덕을 내려달라 올라 갔어요"라며 그녀의 상황이 어이없는지 허탈한 웃음을 짓는다. 그녀가 살고있는 전농3동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재개발지구이다. 93년 7월 재개발사업인가가 난후 1천50세대 주민은 이주하고, 50세대만이 남아 '가수용지 확보, 선대책·후철거'를 요구하며 강제철거에 대비하고 있다. 이미 작년 7월, 올해 1월과 2월에 기습철거를 당해 4백여 가구의 집은 이미 철거어진 상태다. "집회에는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부당한 사실은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평범한 세력소주인, 비디오키아 애용자도 다같이 핸드마이크를 들고 다니며 홍보에 열을 올렸죠. 힘들지만 보람도 많았어요"라며 집회때의 사진을 슬쩍 보여준다. 이주한 주민의 빈집에 거거하며 보낸 수개월동안 가장 속상했던 일은 '혁이' 다은이가 고생하는 모습이었다고 미안해하는 그녀에게 이틀전엔 잊지 못할 하루였다고 한다. 그녀가 손수 지은 유치원 교복을 입은 혁이의 모습이 늠름하게 보여 무척이나 감동적이었던다. "대통령이 왜 감옥에 갔어요? 대통령이 좋은 사람인데..."라는 혁이의 순진한 질문이 가장 난감하다는 그녀의 말을 뒤로 하고 허름한 주먹가를 나왔다. 철탑 콜리웃빌에서 살고있는 몇명의 꼬마들의 모습이 시야에 어른거린다. (누)

동약로 퍼즐 맞추기

"교과, 교양 및 영역, 전공...뭐가 다른 거야?"
"저 교수님이 우리 반 담임선생님(?)인 감 2"신입생 적응지도 한 강의실에서 나오는 새내기들의 얘기가.
"우리반은 다 이색고, 저반은 다 김씨네"
지난 6일 실시된 신생 적응지도에서 인문과학부 학생들은 일련번호 임의로 나눠어진 학과반별 교실 이동후 다시 13명씩 한 지도교수 아래 뒤풀러 앉았다. 검정 싸인펜을 빼들고 노란 수장신 체크카드를 받아본 새내기들은 강의 계획서를 이리저리 둘러보며 선택 도우 말을 듣기에 한창이다.
"어떻게 해야 최대 21점점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영역이 이렇게 많아", "어? 이 과목에 나는 이 교수님 것 밖에 못 들네?" 다수의 새내기들이 목을 쭉하며 옆사람 카드를 들여다 보기도 하고 연신 고개를 가우뚱한다.
"저 질문 있는데요. 전 왜 18학점밖에 안돼요?" 질문공세를 퍼붓는 새나기도 있다.
"아니, 이게 뭐야. 간신히 학점 채워 넣었는데 거기가 7·8·9교시잖아".
한창 펜을 굴리던 새나기의 시간표에는 늦은 오후수업들이 백백이 차있다. 재수강 신청으로 미뤄진 다음날 새나기들은 원호관 소강당에 다시 모였다. "이렇게 여러모로 시행착오가 드러나는 학부제를 속에서 저희 학부생들은 희생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니다. 학생간부인 한 선배가 설명을 시작한다. "이 수강카드를 저희가 수거해 개선을 위한 부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있으시면 가지고 가셔도 좋습니다" 새나기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조용히 호응의 박수를 보낸다.
"아직까지 선택배들이 무슨 애정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강의시간표는 보면 불수록 더 모르겠네요. "내가 듣고 싶어 선택한 과목은 없어요. 진짜 대학교 강의는 자유선택 맞나요?" 아직까지 멍하다며 한 새나기는 머리를 끄덕인다.
서둘러 이리저리 까맣게 정정란을 칠하는 등 정신없이 수강신청 표기작업이 한창인 한 학생 책상바닥에는 '동국대학교 교육제도, 이렇게 개혁했습니다'라는 진학지도 자료집이 펼쳐져 있었다. (신형섭 기자)

형제는 아니지만 같은 피가 흐릅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쉽지만
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은 흔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내 피를 나누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로
사랑을 실천하는 벼산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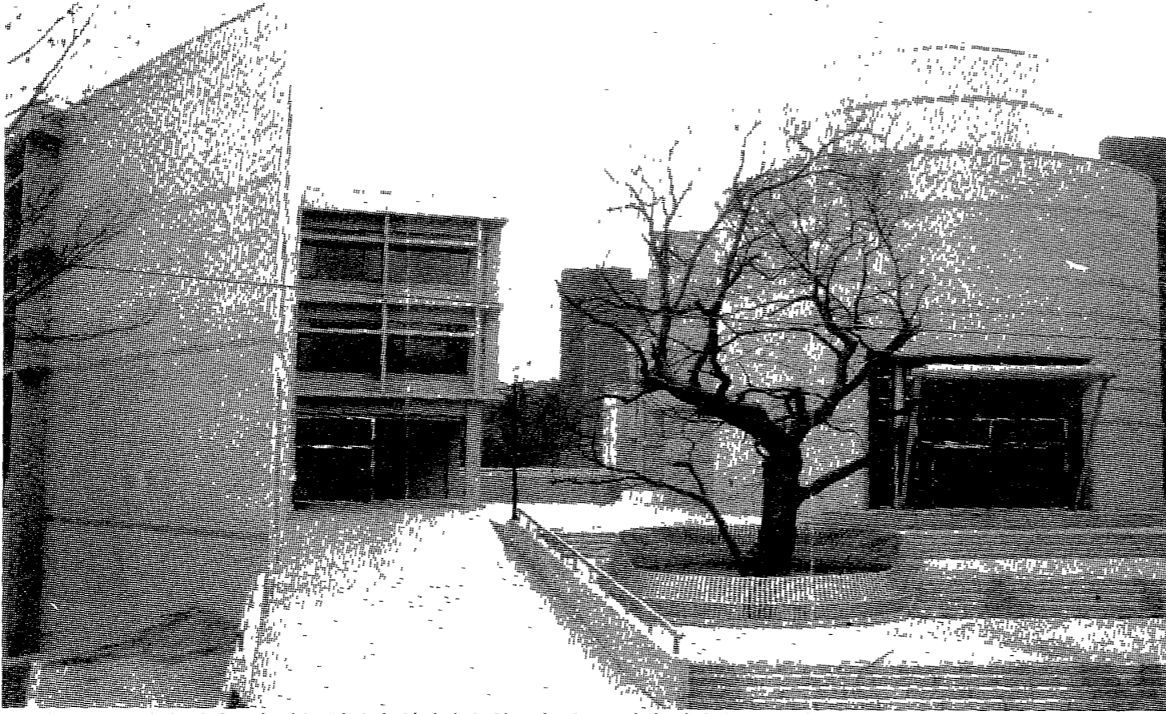
벼산그룹의 전임직원은 해마다 단체헌혈을 하고 있습니다.

벼산그룹

◇ 송석구 총장 취임 1년을 되돌아 본다

교육제도·환경 개선 박차...기금 40여억원 확보
장기발전계획위해 제주체간 지속적 논의 필요

송석구 총장이 취임 1년을 맞았다. 개교 90주년을 맞는 올해 송석구 총장 취임 1년을 특히 그 의미가 크다. 송석구 총장은 선거 당시 중장기발전기금 마련, 수익사업 전개 등의 재정확보를 비롯해 경영합리화, 행정개혁, 교육개혁, 복지후생, 학교발전 등의 많은 공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인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학사행정 공개, 경영진단 실시, 종합 행정 전산망 구축, 행정개혁 위원회 설치, 긍정적인 인사제도 운영, 새로운 커리큘럼 개발, 연구환경 개선, 도서관 시설확충 및 전산화, 신입생 정원규모의 기속사 건립, 교수·직원 처우를 전국 중상위권으로 개선, 연구활동 특별지원, 제3캠퍼스 건설 및 불교종합병원 건립,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이 부여된 공약이 있다. 이러한 공약을 바탕으로 95년동안 본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작년 한해동안은 학부제를 중심으로 한 교육제도 개선과 교수들의 연구환경 개선, 그리고 명확분위 조성 등을 위한 조경공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 본교는 작년 한해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최근의 학술문화관 개관에 따른 제주체들간의 마찰 등 풀어야 할 과제들 안고있다.

먼저 교육제도 및 환경 개선을 살펴보면 지난해 6월 7일 국내 최초로 교육개혁을 단행하여 졸업최저이수학점 다양화, 전과제도 확대, 조기졸업제도 확대, 복수전공제, 대학원학점 선취특제도 실시, 타 대학 학점인정제도 실시, 학급정원상한제도 시행, 교과목개설의 다양화 및 통합화 등 많은 교육제도를 신설, 개선했다. 또 이러한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다전공 및 복합학문 연구가 가능하도록 학부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학생회관 수선 및 전 강의를

과 연구실의 난방시설 설치를 비롯한 기원학사 시설 개보수, 학내전산망(LAN)망 및 케이블 설치, 해화관·학림관·과학관 등 각 건물의 내외부 도색 및 화장실·휴게실 개보수와 노후·불량시설 교체, 각 과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등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이 이미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교수 연구환경 개선에 관해서는 교육여

건 조성과 교육,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한 교수업무평가제 신설과 부설연구소의 집중·체계·조직화를 통한 연구역량 극대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설연구소 통제방안, 연구소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의 필요성 증대로 인한 연구교류처 신설, 그리고 각종 산학협동 등의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지난 여름방학동안에는 총 2억5천만 원을 들여 1천4백여의 식재와 후문운동부 미관공사, 학림관 및 인공폭포, 체육관쪽 수목터미널 조성, 민해광장 자연석 쌓기 등 대대적인 학내 조경공사가 있었다.

학교는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과 연구분위기 조성을 작년에도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대

산 캠퍼스 부지 32만평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며, 이곳에 1천병상 규모의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 부속 양·한방 불교종합병원이 세워질 계획이고 또한 분당 총 2천2백50평의 부지에 지하2층 규모의 한방병원도 오는 4월초 개원할 예정이다.

그리고 총장 재임기간 1천억원 모금이라는 공약실현의 첫걸음으로 지난 12월 현재 모금된 1백여억원중 작년 한해에만 40여억원을 조성하는 등 송총장 1년의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손뼉에 땀땀 듯 손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니다. 특히 작년의 학부제 실시나 학내조경공사, 그리고 얼마전의 학술문화관 공간문제 등이 학생들의 반발로 큰 마찰을 빚었다. 또한 작년에 추진된 많은 계획들이 대학종합평가에 합격하기 위한 보여주기식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고 실질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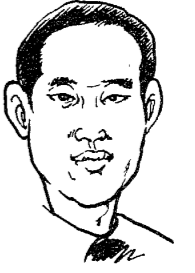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전까지는 이런 일말의 변화조차도 없지 않았느냐는 그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송총장 1년에 대해 학내 제주체들은 성급히 평가하기를 꺼린다. 교수회(회장=이승용·법학)는 "아직은 어떤 평가를 내리기에 성급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자체 기구인 '총장공약실현확인특별위원회'가 이미 꾸려져 있으며, 이 기구를 통해 공약실현 여부를 계속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구체적인 평가는 오는 8월 열릴 예정인 총회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직원노조와 법인사무처 역시 "평가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느냐"며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직원노조의 한 관계자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일단 함께 동참해서 때론 받쳐주고 때론 끌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함께 노력하지도 않고 비판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전 동공인의 화합을 강조했다.

앞으로 남은 임기 3년동안 많은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본교 장기발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본교 제주체들간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논의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다.(박대우 기자)

뜻깊은 만필

누구를 향한 돌맹이인가



한만수

4.11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신문마다 '뜨거운 표발' '역전' 등의 제목을 뽑아내고 있지만 막상 '한표' 등의 표정은 심드렁하다. 민주대 반민주, 보수 대 혁신의 대결구도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들 한다. 또 총선을 대선의 전초전으로 간주하는 것이 오랜 관습임을 생각하면 이번 선거에 대한 시들한 반응은 곧 차기 대선에 대한 관심의 약화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이 틈을 비집고 범소주의가 활개를 친다. '그 그릇이 그 그릇, 어차피 이 배지는 마친가진데 누굴 찍겠나'는 식이다. 하긴 잘 봐주자며 먹고, 폭로하지 않자며 받고, 눈감아주는 댓가로 뜯어내는 온갖 부정부패사건마다 정치인들은 약방의 감초처럼 꺼져 마렵다. 이 '모습을 집합 때마다 정치인을 수습해버리자'는 말이 그저 농담만으로는 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치인의 수준은 곧 유권자의 수준이다. 정치인들만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 그들을 뽑아내는 유권자 역시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선거제도가 도입될지 반박년이 되도록 우리 정치문화는 이 모양이 끝이다.

'말을 듣고 돈을 댈' 선거법(실제로는 여당만 들고 아담은 댈, 또 한역은 들고 신인은 댈)은 경우가 많긴하다(다)를 만들었다지만 '맹인으로 표를 찍어달라'는 유권자들의 노골적인 요구가 적지 않다고 한다. 자연스레 검은 돈에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다가 일이 불거지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정권의 눈밖에 나면 구속되게 마련이다. 그리고 텔레비전을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은 손가락질을 해낸다. 그러나 고개를 숙인채 수갑을 차면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릴 지도 모른다. '나는 운이 나빴을 뿐이다. 이 정도 뇌물도 구속돼야 한다면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절반 이상은 비계 될 것이다. 운운'

죄를 지어야만 살 수 있는 사회적 구조와 제도를 그대로 둔채 범법자 처벌에만 주력하는 것을 일벌어 땅민(網民)이라고 했다. 그들을 쳐놓고 백성들을 잡는 정치라는 뜻이다. '맹' 일로 는 표를 주지 못하겠노라고 할 때는 유권자들은 그들을 쳐놓고 정치인들을 그리로 몰아가고 있는 셈이 아닐까. '주는 것은 받고 찍을 때만 바로 찍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사람들도, 결혼이나 회갑때면 지역 국회의원 화환 하나쯤 와 있어야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오십보 백보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는가.

문학평론가

경상계열, 대교협실시 학과평가서 최우수 판정

교육목표·과정평가 부분에 높은 점수

시청각 기자재·열람독서실 확보 등 과제

목표(학과목표의 내용, 실현, 설정방법, 설정) △교육과정(교육과정구성, 개선, 수업지도, 실험실습교육, 학습평가) △학생(학생생활, 학생지도, 학생자치 및 학습활동, 학생복지, 학생산출) △교수(인사, 교수구성, 교수여건, 임직평가, 교수연구) △시설·설비 및 행정(강의실 상황, 실험실) △재정(기획, 재정확보 및 운용) 6개 영역에 걸쳐 3백점 만점으로 산출됐다.

평가과정은 각 대학으로 하여금 자체 평가를 실시·보고하도록 하여 평가위원회의 각 대학자체평가 보고서에 대한 서면평가에 이어 방문평가 순으로 진행된다.

본교의 작년도 자체평가 추진일정은 94년 9월에 자체평가계획 통과 접수 후,

95년 2월에 위원회 구성과 자료수집을 통해 5월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완성, 대교협에 제출했으며, 교육목표평가 부분에서 본교의 독특한 불교사상과 세계화 추세를 감안하여 새롭게 논의한 부분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학생평가부분에서는 자치활동으로 활발한 소모임 연구, 90%의 취지율과 CPA(공인회계사)합격률을 제시했다.

시설·설비 부분에서는 컴퓨터실과 학생들의 휴식공간이 개선되어 보고됐는데, 컴퓨터실의 경우 공간이 크게 확장되면서 컴퓨터보유가 기존의 286, 386기종 40대에서 486기종 90대로 확대보유하게 됐다. 또 교과강의와 회의실로 이용할 수 있는 영

상 강의실(동국관 M203, 204, 209)이 3개 마련됐다.

작년 자체평가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황윤호(경영학)경상대 학장은 "학과평가 준비에 있어서 학교측에서 4억여원의 지원이 있었고, 컴퓨터실 확장에 있어서 학생회실 공간을 내놓는데 학생들의 협조로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평가에 대해 "3개과의 학부와 대학원이 대교협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를 거쳐 최우수 판정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러나 최우수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4개의 단과대학이 자리하고 있는 동국

관의 공간문제, 교육시설 확보에 있어서 시장학교육대학과 경상대 열람독서실 확보 등의 문제가 발전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황 학장은 "일산 캠퍼스가 완성되기까지 향후 4~5년간 전동국인이 좁은 공간을 서로 공유하고 양보할수 있는 시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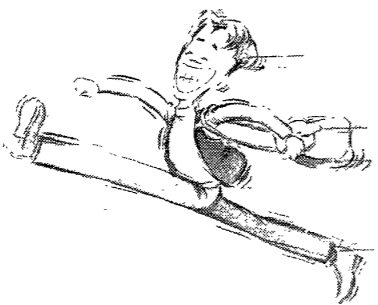
학과평가 이후 학부제로 바뀌면서 경상대 학 발전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앞으로 대학의 발전된 모습을 그릴 수 있도록 모든 과가 연차적으로 받게 될 학과평가제의 준비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은)

이번호부터 '뜻깊은 만필'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 정남기(연립통신 조사부장)
- 김병길(한울신문사 편집국장)
- 김형균(복지사 대표)
- 한만수(문학평론가·순천대 교수)

문학평론가



"그 친구에게선 바람소리가 난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늘 푸른 자람 - ①

하루를 25시간으로 쓰는 젊음 -

4년간의 대학생살은 단 한 번뿐인 황금기 - 하루를 25시간으로 써도 시간은 부족하지만 합니다. 진리탐구와 자아성찰, 그리고 드넓은 세계관 확립에 이르기까지 지성인의 스케줄엔 휴강이란 없습니다.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창조적으로 리드해 가는 깨어있는 젊음 - 그 역동적인 젊음이 삶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지금 캠퍼스에 불어오는 새로운 바람 - 랜드로바가 함께 합니다.

랜드로바

PM 8:00-영국관

PM 6:00-8:00 고교 동문회

PM 4:00-5:00 미팅 PM 5:00-6:00 스포츠모임

PM 2:30-3:50 강의

PM 1:00-2:00 타임지 세미나 AM 9:00-11:30 강의

학술문화관 공간문제 잠정 해결

미술학과·원총 점거 철회



◇지난 4일 열린 학술문화관 준공식에서 학생들이 '등록금 인상 반대' '공간배치에 학생참여 요구'를 주장하고 있다.

예술대 학술문화관 공간문제가 대 학생회(회장=김재영·연영4)측 불거져 나온지 6개월만에 그 해결 점을 찾은 모습이다. 지난 4일 학술문화관 시위후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 학교측과 예술대 학생회(회장=김재영·연영4)측의 회의결과 학교측이 학생회측의 요구를 가능한 범위내에서 수용기로 결정, 한발 물러섰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학생회측이 제시한 공간배치안을 최대한 수용기로 했으며 조소전공 4개학년을 모두 학술문화관으로 이전시키기로 결정했다.

대신 조소전공이 사용했던 수영장을 야외실습실로 계속 사용키로 하고 점거중인 학술문화관 공간에서는 철수키로 쌍방간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 그러나 아직 연영과 화실실 공간이 없는 등 문제가 남아있다. 지난달 28일부터 학술문화관 지상 1층 점거에 들어갔던 대학원생 학생회는 점거 10일만인 지난 8일 지하 1층으로 이전했다.

이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 대학 학생회측은 "학술문화관 점거 사태와 준공식에서 일어난 학생과 직원의 뒤통수 등 분열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문제의식을 느끼게 됐다"고 말하며 "학생들의 양보가 자기 목소리만 내는 일련의 공간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학원 총학생회측은 지난 7일 대표자 회의에서 점거철회를 결정한다 이어, 8일 대학원당국과의 협상에서 세미나실 1개 확보, 대학원 총학생회실 1층 잔류를 제외한 학교측인 전부를 수용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방반사실, 조명확충, 방음벽, 환경시설, 책상상 교재 등 대학원생들이 좋은 환경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점거철회후 대학원 학생회측은 '전 동국인의 단결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평점이 4.0이상, 졸업논문이 통과한 자로 조기졸업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 또한, 복수전공 이수신청은 현재 4학년을 대상으로 전공과정 이수시 취득학점이 매학기 18학점 이상이고, 전학년 평균평점이 3.0이상인 자를 대상으로하며 복수전공이수 허가는 4학년말에 본인에게 통보된다.

고승초빙 법회 오늘 개최

오녹원 이사장 '깨달음' 설법

고승초빙법회가 정각원(원장=이법산·선학)에서 오늘 오후 4시에 마련된다. 이번 법회는 전교직원,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본교 이사장 녹원 스님님이 '빠른 깨달음의 길'이란 주제로 설법한다. 한편, 전체 조교신행실수교육이 22일 정각원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졸준위 앨범품평회 편집·인화도 우수평가

앨범품평회 이후 졸준위 전국연합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남의회위원장 "연합제가 졸업생들의 올바른 사회진출을 위해 기업과 학우들이 동등한 입장에서 서게끔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졸준위는 3월내로 자체 취업정보지 '참깨'를 발행할 예정이다.

축구·농구부 대외 경기 출전

기량향상 스카우트...선전예상

농구부는 오는 16일부터 9일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96MBC배 전국대학농구연맹전'에 참가한다. 고대, 연대, 한양대, 명지대와 함께 1부리그에 속한 본교 농구부는 올해 스카우트한 센터 송태영의 8명의 신입생들의 기량이 출중해 선전이 예상된다. 체육부의 한 관계자는 "신입생이 주축이 돼 미숙한 점도 많을 것"이라며 "당장 확실한 성과는 얻기 힘들겠지만, 꾸준히 경력을 쌓고 노력해 나가면 수년안에 연맹전에서 들쭉날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강신청 확인 실시

13일부터 3일간

96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확인을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각 대학 교과과목 학과에서 받는다. 수강신청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은 할 수 없으나 전산처리 오류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변경 혹은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또한 컴퓨터 실습, 실용영어 등 실습과목의 수강정정은 수업운영상 수강정정이 불가능하다.

'목적' 위탁업체 선정

(주)코리아 케더링으로 학술 문화관 지하2층의 교직원 전용 식당인 '목적'의 위탁업체가 지난 4일 선정되었다. 총 5개의 업체가 입찰에 응모한 가운데 지난 4일에 있던 심의위원회에서 선정된 '목적'의 위탁업체는 현재 명진가든을 운영하고 있는 (주)코리아 케더링으로 낙찰가는 보증금 5천만원에 월임대료 2백만 원이다. 또한 설비에 드는 비용중 학교에서 책정한 예산 1억4천만원은 주방 설비에 사용되고, 주방을 제외한 나머지 설비는 선정업체에서 모두 부담한다. 한편 '목적'의 임대기간은 오는 4월1일 OPEN 예정일부터 98년 12월까지로 총2년8개월이며 계약만료 후 '목적'식당의 시설 및 비품은 학교에 기부채납된다.

북한 식량난 구제성금 모금

교수평의회(회장=김익기·사회학)에서는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주민을 돕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4월30일까지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 이에 50만원을 모금한 교·평에서는 교수, 직원, 학생의 동참을 요청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제는 다음과 같다. 조흥 313-04-429258 예금주 정재형.

보리수 영업시간 연장

토·일요일도 문열어

다량관 2층 보리수 매장의 영업시간이 오늘부터 연장된다. 복지사업공동관리 위원회(위원장=김진철·정치외교학)는 기존의 평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의 영업시간을 오후 7시까지 1시간을 늘려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토요일, 일요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던 것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업하기로 결정했다.

문과대 학생회장 선거

오는 20 21일 투표

후보 미등록으로 무기한 연기되었던 제28대 문과대 학생회장 선거의 일정이 지난 8일 발표됐다. 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11·12일=후보자 추천, 등록 △13일 정오부터 선거운동 시작 △14일 정오=후보자 공보 △15일=1차 합동유세 △19일=2차 합동 유세 △20·21일=학생총회 및 투표 △22일=당선공고

교내통학버스 시범 운행

신체장애자 배려책

총무(과장=김종진)는 여학생 및 신체부자유학생을 위해 교내통학버스를 지난해에 시범 운행했다. 등대전철역에서 출발해 정문, 본관, 도서관, 준문을 경유하는 통학버스는 오전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0분간격으로 운행된다. 총무와 한 관계자는 "학생들의 호응이 좋으면 오늘부터 정식 운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동국시집 속간

동국문학 인명록 증보판도

본교 출신 시인들의 작품을 담은 '동국 시집'이 5년만에 다시 속간된다. 이번 한국문학연구소가 펴낸 '동국 시집'에는 본교 출신 기성시인 70여명과 재학생 10여명의 시가 수록된다. 한국문학연구소는 또한 본교출신 문학인들의 인적정보를 정리한 '동국문학 인명록 증보판'을 발행한다. 이 증보판에는 현재 활동중인 본교 출신 문인 1백여명이 추가 수록되어 동국출신 문인들의 수가 45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무대

북새통 강의실

0...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온 어느 북학생, 연희의 꿈을 안고 첫강의를 맞았다. 아가가! 뒷담사 이리도 사람이 많다고, 정면이라봐야 50명 남짓에 북학생이라봐야 10명도 안될진나 축하 100명은 돼보인다는거. 새식구를 맞이했으면 새단장도하고 새기풍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등록금 오른것도 억울한데 북새통에 강의도 영망이 될까 억울하다는 후문.

가깝고도 먼길

0...학술문화관에 대한 불평이 심심치 않게 나온다는데... 옹호하니 학술문화관을 한번 갔다나오려면 유일한 관문(?)을 통해 멀리 돌아가는 수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라고. زیرا상으로 인접한 동국관이나 해화관에서도 연결통로가 없어서 험한 샅길을 이용하는 학생들마저 있는 실정. 이에 학술문화관 공간문제와 통행로문제에 대해 한 학우 왈 "쉽고도 어려운, 가깝고도 먼 길"

21학점의 고지

0...요즘 신입생들은 수강신청을 인화까지 신청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알아본즉, 교양 시간표와 과 시간표가 겹치는 부분이 많은 뿐 아니라 선택할만한 교양 과목도 거의 없어서 그렇다고. 게다가 어쩌다 듣는 교양시간 수업은 만원버스 밭치고, 울며 겨자먹기로 다른 과 수업을 자유 선택으로 듣는 신입생들 나도 한마디 "역시 학부제는 대단하구나. 쉽게 여러 학위도 딸 수 있구!"

일지매 나옴지도

0...15%이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받은 학생들의 표정은 그야말로 각양각색, "동학불변진리는 등록금인상, 안오른적이 언제 있었느냐"는 자포자기형, "군대갔다오니까 두배로 뛰었다. 점점더 가속도가 붙는다"는 아연실색형에 이르기까지. 한편, 본교 재단전입금 거액이 이월되지 못하고 금고에서 잠자고 있다는 일간지 보도가 얼마전 눈길을 끌었다는데. 이제 "금고를 기여코 열겠다"는 '신관 일지매'가 나오지 않을까 회전무대자 불안해.

납입금 수납 기간 연장 안내

'96학년도 제1학기 학부 재학생 납입금을 다음과 같이 연장 수납합니다.

다 음

- 납부기간: 1996년 3월 11일(월)~3월16일(토)
- 납부처

캠퍼스	납부처	대상학생
서울 및 경주캠퍼스	조흥은행 및 국민은행 전국지점	전산처리된 고지서를 소지한 학생 (전산처리된 장학생 및 북학생 포함)
서울 캠퍼스	조흥은행 동국대출장소 국민은행 충무로지점	(1)장학금 지급의뢰서를 소지한 학생 (등록금고지서와 장학금 지급 의뢰서를 함께 납부처에 제출하여 차액만 납부)
경주 캠퍼스	조흥은행 경주 동국대출장소	(2)계발행고지서

- 기타

- 1)등록금 고지서는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지정납부처에 납부하지 않을시 무효로 학적이 상실되거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3)기타 사항은 서울 및 경주캠퍼스 경리과로 문의 하시기바랍니다.

총무처장

심리검사 및 상담안내

학생생활연구소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심리검사와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심리 검사:** 인성검사, 적성검사, 지능검사 등을 수시로 실시하며 비용은 무료임. 심리검사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담에 응하고 있음.
- 상담:** 학생들의 학업, 성격, 대인관계, 직업 및 진로선택 등 대학생활 전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상담원과 연구소 관계 교수 및 비상임상담원들이 상담에 응하고 있음.
- 진로 지도:** 학생들 개개인의 적성, 흥미, 소질, 능력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개인의 진로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졸업이후의 합리적 진로선택과 결정이 가능하도록 자료 및 기회를 제공함.
- 해외유학안내:** 해외유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해외유학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실시
- 강연 활동:** 학생들의 교양과 정서함양을 위해 학내외의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강연활동 실시

※ 문의 처: 학생생활 연구소(교수회관 3-1호:구내전화 3506)

1996. 3.

학생 생활 연구 소장

식량난에 봉착한 북한주민들을 돕읍시다

새 학기를 맞이하여 전 동국인들의 건승을 빕니다.

금번 저희 교수평의회에서는 어려운 식량난에 봉착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처지를 돕기 위하여 조그마한 성금의 손길을 펼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교평회원들이 1차로 50만원을 모금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이 운동을 전교에 확산하고자 하오니 교수, 직원, 학생 어느 누구든지 이 뜻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은 적극적 참여를 바랍니다. 이 성금이 모자라면 조계총 총무원장님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뜻에 동참하실 분은 다음과 같은 교평회 임원단에 연락을 주시든지 직접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 장: 김익기(구내 3260)
총 무: 황훈성(구내 3163)
재 정: 정재형(구내 3436)

온라인구좌: 조흥 313-04-429258; 예금주 정재형
기 간: 96.3.10~4.30

동국대학교 교수평의회

□ 언론 바로 보기

사실이 재구성·재해석된 것이 '언론' 메세지가 제시하는 의미 올바르게 파악해야

장 하 용

(사회과학대 신방과 교수)

"진리를 하여금 허위와 투쟁하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된 싸움에서는 진리가 당연히 이기는 것"이라는 말틴의 말은 언론의 시장에서 사실이나 의견이 자유롭게 표출되고 전달되면 진리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으로서 언론자유와 기초를 대변하는 경우로서 자주 인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대와 같이 새로운 매체기술의 발달과 언론매체의 거대화, 복합화 그리고 소유의 집중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고전적 언론주의의 이념은 점점 퇴색되고 있다. 언론시장은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이 자유롭게 만나 진리를 찾는 공정한 무대가 아니라 언론매체의 소유주와 종사자, 그리고 여론형성

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의 사회 엘리트들의 목소리가 주도권을 행사하는 일방적인 장소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이 존재하는 여론을 반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언론이 여론을 형성하는 것인가? 언론은 우리에게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그럴 허위를 보여준다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언론은 자신들에 의하여 재구성되고 재해석된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한다. 하나의 메세지가 대중에게 도달하는 과정에는 수많은 내부적, 외부적인 요인들이 관계한다. 신문에 보도된 한 사건기사가 그것이 비록 객관적 사실의 묘사라 할지라도 기사제작과정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내부적인 요인들, 예를 들어 관찰한 기자의 주관이나 데스크의 중요도에 대한 판단, 편집상의 제한들에 의하여 실제의 모습이 변형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된다. 얼마

전 언론사의 기사가 유신시대에 각 언론사에게 내려오던 보도지침을 공개하여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강압정권 시대의 전형적인 언론의 내용에 대한 외부적 통제를 보여 주는 것이었지만, 언론의 보도에 가해지는 통제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존재한다. 광고주의 압력, 언론사주의 이윤추구, 정보원에 대한 통제, 그리고 언론사의 자율적 규제라는 다양한 과정들을 통과하여 언론의 메세지는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언론은 사실과 허위의 중간지점에 존재한다. 언론이 어느 쪽으로 가깝게 다가서느냐 하는 것은 언론을 수용하는 바로 우리들에게 달려 있다. 근자에 들어 한쪽에서도 매체에 대한 접근권이나 매스미디어 바로보기와 같은 언론수용자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의 핵심은 지금까지 수동적으로 언론

의 메세지를 수용해 왔던 모습에서 벗어나 언론 메세지의 실제적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언론의 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민주언론운동협의회와 언론학교나 YMCA의 좋은 방송을 위한 시청자 모임 등이 있으며 이들은 매스미디어의 메세지를 선별하여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의식의 교육과 사회구조 속에서 언론의 올바른 임무 수행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문학작품의 의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행간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다. 언론의 메세지는 물론 문학작품이 아니다. 그러나 매일 매일 엄청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필요한 양질의 정보를 가려내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진짜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 '96 봄호 문학 계간지 분석

외교적 긴장관계 속에 열린 '한·일 문학 심포지엄' 중점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제3차 한일문학 심포지엄에 참가한 한일 작가단

'문학 속에서 만큼은 객관적 타자의 관점에서 서로를 보고 평가해야 한다'는 명제가 성립되려한다. 올해 각 계간지 봄호에서는 특히 일본과의 문학관계와 일본측의 입장을 주로 집단한 것들이 많다. 잇따른 일본방문으로 인하여 한-일양국의 정치적 긴장관계가 지속되는 요즘 계간지에서는 문학을 통한 긴장완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 대조적이다. 지난해 11월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열린 제3차 한일문학심포지엄을 특점으로 다룬 '동서문학을 비롯, 문학평론가 이광호 씨 참가를 계재한 '문학과 사회', 그의 '문학사상'의 '오늘의 일본 문학'을 진단한다 - 특히 한국 문학과

의 중심으로' 등은 이번 계간지의 한 경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일문학 심포지엄이 열린 시기가 광고를계도 예도 전장관 광연사건으로 양국간이 조성되면서 있었던 것인데 '문학과 사회'에서 참가자를 집필한 이광호씨는 "한국과 일본이 근대사의 출발기에 있었던 그 불편한 인연과 내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상 그 긴장이 완전히 해소된다는 것은 불가능 할지도 모른다"는 견해를 내치시 밝혔다. 한편, 현재 독도방안에 대한 파장으로 국민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긴장관계 속에서 한·일 양국간 정치적 파장을 문학으로 모아내고 또 서로의 문학을 객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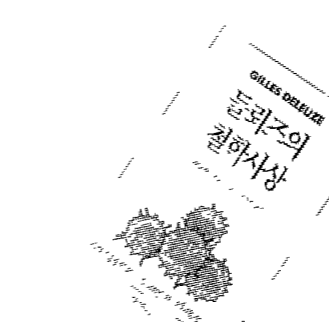
하고 반성적으로 성찰하기 위한 심포지엄은 자국의 이익을 위한 대립을 뛰어넘어 하는 시도가 아닌가 여겨진다. 이번 심포지엄 진행중 일본측은 일본 문학비판에서 현황제를 비판하기도 하는 충격과 공감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동서문학' 심포지엄 참가에서 박유하씨는 "그것은 전황을 정점으로 중심화를 해체하려는 의도인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문학의 위기에 대해 일본측에서 "문학의 위기는 문학의 확산현상으로 봐야 한다", "그말자체가 문학이 내포하는 정치성을 드러내주는 말이며 자신의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의식의 발로다"라고 했다. 한편 한국측의 복거일씨는 "새로운 대중에게 술매체가 오려면 문학의 확산에 도움을 준다는 논의와는 달리 일본측의 발제가 일본문학의 미래에 대한 어두운 예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의 문학 심포지엄에 대한 특징이 봄호 계간지의 중심 내용이지만 또하나 주목해야 할 계간지가 하나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창작과 비평'으로 30주년 기념호를 낸 것이 그것이라 하겠다. 30년 세월간 판권, 폐간, 복간을 거치면서 또한 사회구성체논쟁에 기여한 바 있는 '창비는 기념호를 출간하면서 '창작과 비평 30년을 말

한다"고 시인 박노해, 고은 등 32인 신작시선'을 내놓았다. 또 하나는 대학생들이 즐겨보는 문화비평 계간지인 '오늘에감'으로 이번 봄호를 문화는단에서 한정수씨의 '지킬박사와 Cyber Ego'는 20세기 최대문화상품, 사이버 스페이스에 대해 다루고 있다. 한정수씨는 "PC통신을 통한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투쟁함으로써 사이버 스페이스의 공간적 특성은 문화의 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실사회에서 사이버 스페이스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내부에서는 실사회 담론을 적극 수용하는 과정속에 서만이 현재 인성문화의 모습은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다"며 사이버 스페이스 문화현상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양국간의 문학 심포지엄은 "매스컴의 담론에 지배되지 않도록 지식인들의 상호이해와 교류가 중요하다"는 입장에서 볼 때 "양국 문학인들의 교류가 언젠가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결실을 맺어 문학의 진정한 힘을 보여 줄 날을 기대한다"고 박유하씨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것은 문학이 결코 동상이나 예언이 아닌 현실에 대한 일정한 반성적 성찰을 담고 있으며 객관적 타자의 관점을 견지하려는 의미가 깊다고 분석할 수 있었다. (박요선 기자)

문학단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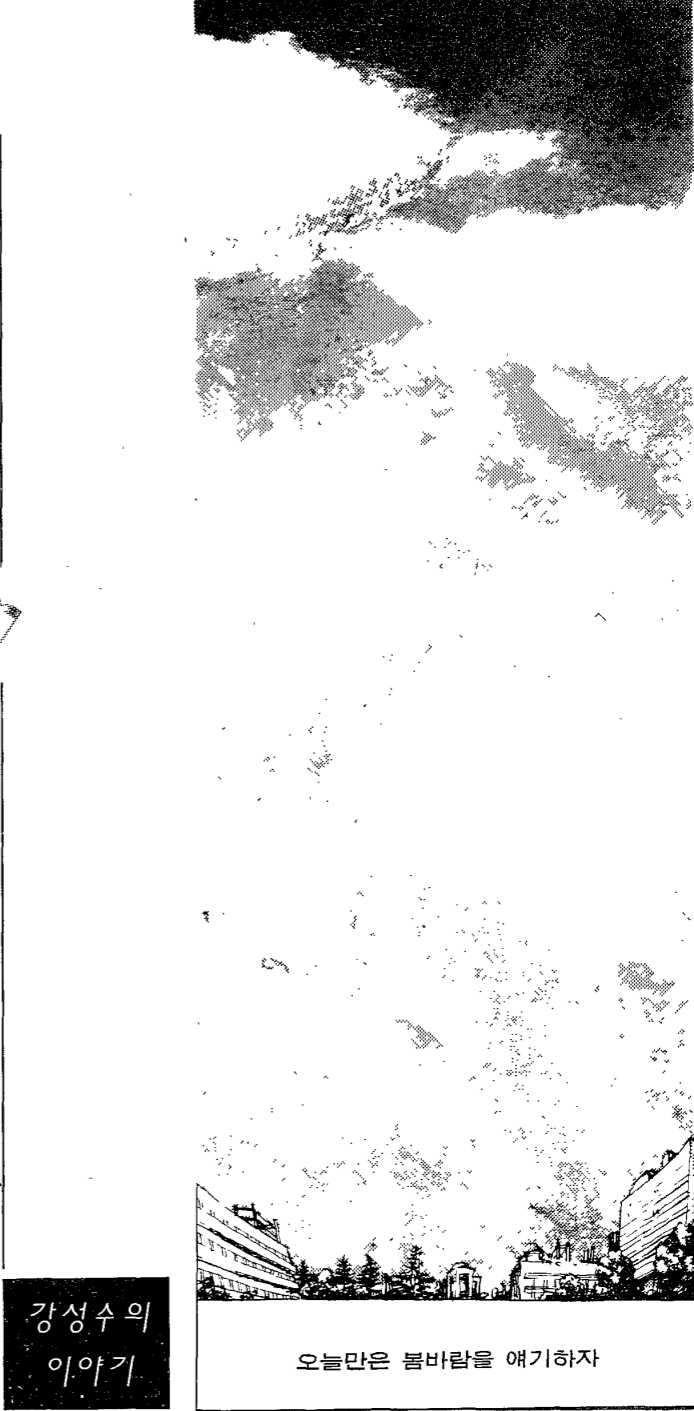
◇틀리츠의 철학사상...틀리츠 철학사상의 발전을 분석한 철학개론 서이자 현대 프랑스 철학과 포스트 구조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문서.

우리에게 '난해한 철학'으로 알려진 틀리츠의 사상 발전을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그의 철학의 핵심을 지배하는 비판적 문제의식들을 분석한다. 도서출판 갈무리에서 출간했으며 마이클하트 지음. 가격은 8천5백원.



◇나부영교수 정년 퇴임기념전 ...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나부영 교수 정년퇴임기념전과 제7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미술학과 '동문전'이 경주서라벌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나교수는 동물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유명하며 말을 소재로 한 군마도, 거북이를 소재로 한 군구도 등이 있다.

◇빛을 향해 서리라...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서울중앙병원 동·서관 연결로비에서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전란 가들이 작품전이 있다. 강덕경, 김순영, 이영녀 할머니가 그린 30여점과 전문작가 11명의 관련 회화·조각작품 15점정량이 출품된다.



강성수의 이야기

오늘만은 봄바람을 얘기하자

메아리

다중인격자

레 경험했을 채발행위가 가해지고 있다는 기사였는데 이것을 아 이틀이나 어틀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를 일이다. 그저 관례를 따르는 것 뿐이라는 선배, 모진 관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후배, 이런 모습이 근대도 아닌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말이다. ▲요즘 TV와 노래 속에 등장하는 우리의 자화상은 어떤 것인가.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젊은이

들은 하나같이 '젊으니까 그래도 된다'는 식이다. 사랑 찾아 아바지와 동갑인 흠아비와 결혼하겠다고 부모에게 따르는 딸이 있는가 하면, 공중벌에 걸려 정신 못차리는 '애들'도 많다. 노래가사의 전방시속 정도도 이에 못지 않다. "이상은 행위 앞에 노예, 관념은 쓸데없는 창녀, 인격은 실속 없는 허세"라고 거꾸로 가르치고 있는 이 노래를 오빠부대들은 정신없이 따라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더 큰 문제는 그것을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라는 것이겠다. ▲앞세 대들보다 훨씬 풍요로운 물질과 관심 속에 자란 젊은이들, 자신을 용어하는 것들로부터 과감히 벗어날 수 있는 용기로 칭찬받은 이들이 앞서말한 투페이스로 비춰지게 하는 산성액은 과연 무엇인지 머릿속을 정리해 볼 일이다. (리)

正道경영 초우량 LG

최고의 고객만족

화학강국이 세계강국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반도체산업, 전자산업, 자동차산업, 의학산업...
인간의 삶을 편하고 윤택하게 하는 모든 첨단산업도 알고보면 그 핵심기술은 화학입니다.

모든 산업의 기초는 화학-
LG화학은 한국 최대, 세계 끝지의 종합화학회사로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화학산업이 발달해야 나라가 강해집니다.

화학강국

고 분 자

정 밀 화 학

바 이 오 텍

정보전자소재

자동차, 우주항공분야의 엔지니어링 프라스틱 등 최첨단 고성능 신소재 개발
 무공해 농약 생활용품 첨가제, 석유화학 중간체 등 고부가가치의 신물질, 신기술 개발
 유전공학 핵심기술을 응용하여 인간성장호르몬, 제4세대 항생제 등 첨단화학 신물질개발
 고도의 기술융합 연구로 정보화사회를 앞당기는 반도체 기초소재 등 개발

LG화학

LG/화학CU · LG화학 · LG석유화학 · LG MMA · LG오일스프레이 · LG엘라이드스틸 · LG실트론